

# 다니엘서 - 번호 67

예언적 통찰: 이슬람, 2001년 9월 11일, 그리고 동풍의 날

Jeff Pippenger

2024-01-31

세 번째 화에 해당하는 이슬람은 2001년 9월 11일 예언의 역사 속에 등장했고, 즉시 억제되었다. 그때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한정적'이었다.

그것이 뻗어 나올 때에는 분량을 헤아려 네가 그것과 다투리라. 그는 동풍의 날에 그의 거친 바람을 멈추신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죄악이 속죄될 것이요, 그의 죄를 제거하는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석회돌 조각처럼 만들 때에 수풀들과 우상들이 다시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견고한 성읍은 황폐하게 되고, 거처는 버림을 받아 광야 같이 남겨지리니, 거기서 송아지가 풀을 뜯고 거기 누워 그 가지들을 갹아먹으리라. 그 가지들이 시들면 꺾여질 것이요, 여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불에 땀 것이니, 이는 그 백성이 깨달음이 없는 백성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만드신 이가 그들에게 은혜를 보이지 아니하시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강의 수로에서부터 애굽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타작하시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한 사람씩 모아지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이 불려,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게 되었던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사야 27:6-13.

"동풍의 날"은 늦은 비의 도래를 가리키며, 또한 셋째 화인 이슬람을 가리킨다. 그것은 또한 "야곱의 불의가 정결하게 된다."는 역사의 시작을 표시한다. 동풍의 날은 2001년 9월 11일에 도래했으며, 그 시점에 산 자들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산 자들의 심판은 셋째 천사의 마무리 사역이며, 바로 거기에서 14만 4천의 죄를 제거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이사야가 "이로 말미암아"라고 썼을 때의 의미이다.

"이로 말미암아"에 이르는 앞부분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분량대로, 그것이 싹이 돌아날 때, 너는 그것과 논쟁할 것이다. 그는 동풍의 날에 그의 거친 바람을 멈추신다." "이로 말미암아"는 야곱으로 표현된 자들에게서 죄를 정결케 하는 구체적인 시험의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 진리들에는 늦은 비의 도래를 표시하는 사건(9/11)이 포함된다. 그 진리들에는 또한 늦은 비를 '하나의 메시지'로 정의하는 것과, 그 '메시지'가 이슬람이라는 사실이 포함된다. 또한 '동풍'이 셋째 화의 이슬람이라는 진리와, 그 이후 이슬람이 억제되는(stayeth) 예언적 특성도 포함된다.

시험 그 자체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논쟁"으로 나타난다. 예레미야는 첫 번째 실망을 대표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시험의 메시지의 "열매"는 두 부류의 예배자를 만들어낸다.

어리석은 자들의 심판은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두들겨 산산이 부서진 백악석처럼 만들 때, 수풀과 형상들은 서지 못하리라"고 표현된다. 이사야는 28장과 29장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자들에 대한 선언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봉인된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악인의 일(열매)은 토기장의 진흙과 같이 여겨져야 한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기이한 일이나. 이는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멸하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총명이 감추어질 것임이라. 주에게서 그들의 계략을 깊이 숨기려 하며, 그들의 일을 어둠 속에서 행하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참으로 너희가 사물을 거꾸로 뒤바꾸는 것이 토기장의 진흙처럼 여겨질 것이니,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빛어진 것이 그것을 빛은 이에게 "그에게는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29:14-16.

악인의 일은 토기장의 진흙과 같을 것이며, 27장에서는 그들의 일이 산산이 부서지는 석회돌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묘사된다. 석회나 토기장의 진흙은 쉽게 두들겨 가루가 되며, '산산이 부서지는 석회돌처럼 제단의 모든 돌을 만들고' 또한 '서지 못하게' 하려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헐어 버리는 일의 상징은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대표된다. 요시야의 개혁으로 대표되는 마지막 부흥과 개혁에서 재림교회의 조직체는 황폐하게 될 것이니, 이는 '건고한 성읍이 황폐하고, 거처가 버림받아, 광야와 같이 남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사업, 곧 전 세계에 있는 수천의 교회, 학교, 칼리지, 대학교, 병원과 사무용 건물들은 예언적으로 무가치한 가루로 두들겨질 것이다.

회중도 또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 "지각 없는 백성"이 "말라버린" "가지들"과 같아 "꺾여 버리고" "불태워질"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그들을 만드신 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으신 이가 그들에게 은혜를 보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의 기별로 이루어지는 분리가 완료되면,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의 다른 양 떼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른다. 이는 그 날에 "큰 나팔이 불려, 앗수르 땅에서 멸망 직전에 있던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를 예배하리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사야서 27장 8절부터 13절)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예언적 역사를 밝히며, 결국 하나님의 다른 양 떼를 바벨론에서 불러낼 자들의 시험과 정결을 보여 준다. 같은 장의 첫 구절들은 바로 그 역사 동안 불리게 될 노래를 밝히고 있다.

그 날에 너희는 그에게 노래하여 이르기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아' 하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지키며, 매 순간 물을 주리니,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내가 지키리라. 내게는 분노가 없나니, 누가 가시덤불과 찔레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여 싸우겠느냐? 내가 그것들을 꿰고 지나가, 그것들을 함께 불사르리라. 아니면 그가 나의 힘을 붙들여 나와 화평을 이루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나와 화평을 이루리라. 그가 야곱의 후손이 뿌리내리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꽃피고 움트어, 그 열매로 세상의 지면을 가득 채우리라. 그가 그를 치신 것이 그를 친 자들을 치신 것과 같으냐? 혹은 그가 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학살처럼 죽임을 당하였느냐? 이사야 27:2-7.

포도원의 노래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돌보신 포도원으로 규정한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받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제시한다. 그리고 두 단계의 비로 상징되는 성령의 부어 주심에 대한 약속을 밝힌다. 첫 번째 비는 꽃과 봉오리에 생명을 불어넣고, 두 번째 비는 땅을 열매로 가득 채운다.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택하신 백성은 지나치시고 새로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시기를 가리키는 노래이다. 8절 이후는 이 장의 서두 구절들을 단순히 반복하고 확장한다. 이 장의 1절은 8절에서 '동풍의 날'로 지칭된 것과 같은 사건을 가리킨다.

그 날에 주께서 그의 무섭고 크고 강한 칼로 찌르는 뱀인 리워야단, 곧 구부러진 뱀인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 27:1.

용은 사탄이지만, 부차적 의미로는 이교 로마였다.

"그러므로 용은 주로 사탄을 나타내지만, 이차적인 의미에서는 이교 로마의 상징이다." *The Great Controversy*, 439.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교 로마의 열 왕은 말세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을 상징한다.

"왕들과 통치자들과 총독들은 스스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취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곧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러 나아가는 용으로 표상되어 있다." *Testimonies to Ministers*, 38.

이사야 27장 1절은 용에 대한 심판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심판은 동풍의 날,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다. 땅의 왕들과 그들의 글로벌리스트 상인 파트너들에 대한 심판은, '바다들' 한가운데에서 '동풍'에 의해 세상의 금융 구조가 파괴될 때 이루어진다.

보라,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당황하여 급히 물러갔다. 거기에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이 그들을 엄습하였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시나이다. 시편 48:4-7.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8절부터 13절에서 반복되고 더 확장되어 설명된다. 거기에는 "동풍의 날"에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그 두려움이 그때부터 역사 속에서 점점 고조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두려움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지구의 진보적 글로벌리스트들이 논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더 공격적으로 자신들의 의제를 밀어붙이는 비논리적이고 성급한 움직임을 지목한다. 용을 상징하는 사탄과 그의 대리인들, 곧 땅의 상인들과 왕들(글로벌리스트)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아, 기뻐하라.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아! 이는 마귀가 자기에게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기에 큰 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2:12.

2001년에 경제 위기를 불러온 동풍의 날,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언론이 뭐라고 주장하든 악화되지만 한 그 위기야말로, 용이 자기 때가 짧음을 아는 시점에 세계가 직면하는 문제다. 그때 그는 온 땅을 지배하기 위한 움직임을 더욱 격화시키며, '화'(세 번째 화)가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 위에 임할 때 그렇게 한다.

2001년 9월 11일, 셋째 화(동풍)로서의 이슬람의 도래는 경제적 재앙을 초래했고, 그 결과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구상에 단일 세계 정부를 강요하려는 노력을 가속하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마도 성경 예언의 상징으로서의 이슬람에 관한 가장 중대한 계시는 이슬람에 대한 첫 언급에서 발견된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그의 모든 형제의 면전에서 거하리라. 창세기 16:11, 12.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슬람이 해산의 진통을 겪는 여인처럼 계속해서 고통을 만들어 내는 가운데, 성경 예언에서 이슬람이 지목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이들조차 그 두 구절에 담긴 자명한 사실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공통의 적에 맞서도록 한데 모으는 것이 이슬람이라는 점을 이해할지 모른다. 그리고 이는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그 구절의 마지막 문구가 더 중대한 진리다. 세상은 2001년 9월 11일에 흔들렸고, 최근에는 올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다시 한 번 흔들렸다. 그러나 전쟁과 갑작스러운 파괴의 영이 이스마엘의 모든 형제들 "모두의 앞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려는 이는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브루나이, 바레인과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기습 공격을 감행할 때 어떤 파괴가 일어날 것인가? '그의 모든 형제들' 안에는 이스마엘의 영이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 같은 나라들에서 지금까지 세 번째 화로 촉발된 전쟁은 이스마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때에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파키스탄은 핵폭탄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가?

첫째와 둘째 이슬람 재앙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슬람 전쟁의 예언적 특징은 갑작스럽고 기습적인 공격이다. 부유한 이슬람 국가들에는 연료를 가득 실은 제트기, 자동차 폭탄, 불타는 타이어, 강간과 칼보다 더 정교하고 더 치명적인 무기를 은밀히 확보하거나 생산할 만큼의 자금이 충분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밀러의 꿈에 나온 모든 보석들은, 최소한 그 진리들이 거절되었고 예언이 그것들이 회복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지막 때에 시험의 진리들이 된다. 그러나 그 보석들 가운데 일부, 이를테면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셋째 화인 이슬람은, 오직 맨 마지막 때에야 성취되는 예언들을 가리킨다. 하나는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데, 이는 분명 현재의 시험 진리이며, 다른 하나는 한밤중 외침의 기별을 가리키는데, 이것 역시 현재의 시험 진리이다.

밀러주의자 운동과 1989년의 끝의 때를 서로 꿰어 엮어, 나아가 14만 4천의 운동을 도입하는 그 실은 '일곱 때'이다. 그것은 밀러의 첫 번째 보석이었고, 재림교회가 옛 길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제쳐놓은 것이었다. 1863년의 반역에서 1989년의 끝의 때까지의 126년은 '일곱 때'를 표상한다. 2,520은 두 개의 1,260의 기간으로 나뉘며, 1,260의 십분의 일, 곧 십일조는 126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그 연장이 세 천사의 첫째와 마지막 운동을 연결할 만큼 길다. 이로써 '일곱 때'의 진리가 현재의 시험 진리이기도 하며, 더 이상 단순한 기초석에 그치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진리임을 드러낸다.

이제 다니엘서의 올라이 강 환상으로 대표되는 밀러주의 운동에서의 지식의 증가에 대한 고찰을 접고, 14만 4천인의 운동에서의 지식의 증가를 대표하는 히데겔 강의 환상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겠다.

다음으로 1863년부터 1989년까지 126년에 걸친 재림주의의 네 세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연구를 다음 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 달 초닷새에, 내가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을 때, 거기서 주 여호와와 손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불같은 형상이 있는데, 그의 허리 아래로는 불 같고, 그의 허리 위로는 광채의 모양이요 호박 같은 빛 같았다. 그가 손의 형상을 내밀어 내 머리털 한 타래를 잡으시매, 영이 나를 들어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려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북쪽을 향한 안문 어귀, 곧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한 곳으로 이르게 하셨다. 보라, 내가 평지에서 보던 그 환상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야,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보니, 제단의 문 어귀 북쪽에, 그 입구에, 이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야, 그들이 하는 것을 보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에서 행하는 그 큰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 함이냐? 그러나 너는 다시 돌이켜 더 큰 가증한 것들을 보리라, 하시고, 그가 나를 뜰의 문에 데리고 가셨다. 내가 보니, 보라, 벽에 구멍 하나가 있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그 벽을 파라 하셨다. 내가 벽을 파 보니, 보라, 문이 있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하고 가증한 것들을 보라 하셨다. 내가 들어가 보니, 보라, 사방 벽에 온갖 기어 다니는 것과 가증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집의 장로 칠십 명이 서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사반의 아들 야아자니야가 서 있었으며, 사람마다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고, 짙은 향 연기가 올라갔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어두운 데서 이스라엘 집의 장로들이 각자 자기 형상들의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네가 보았느냐?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시 돌아서 보라, 그들이 행하는 더 큰 가증한 것들을 보리라 하셨다. 그가 또 나를 북쪽을 향한 여호와와 집 문 어귀로 데리고 가시니, 보라,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즈를 위하여 울고 있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다시 돌아서 보라,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것들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여호와와 집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와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스물다섯 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호와와 성전을 등지고 얼굴은 동쪽을 향하여, 동쪽을 바라보며 해를 경배하고 있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 집이 여기에서 행하는 이 가증한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냐? 그들이 그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고, 또다시 나를 분노하게 하며, 보라, 그들이 코에 가지를 댄다. 그러므로 나 또한 분노로 행하리라.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비록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8:1-18.